

고3시절과 나의 신앙 생활

권영준 형제
(봉천 와드)

보잘 것 없는 신앙 생활을 해 오면서 그나마도 가장 신앙이 강했던 시기를 말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88년과 89년을 들 것입니다.

88년은 고3 시절이었으며, 89년은 선교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88년은 다음 해에 선교 사업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나름대로 순수한 신앙을 간직했던 때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저에게는 더없이 뜻 깊은 해였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도 고3 시절의 훌륭한 경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고교생들과 마찬가지로 제게도 공부는 큰 짐이었으며 특히 세미나리와 활동이 있는 토요일과 여러 모임들이 있는 안식일에 거의 공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벅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교회 모임을 가장 큰 기쁨과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표했던 공부를 다 하지 않으면 토요일 모임에 가지 않겠다는 규칙을 정해 놓고 있었으므로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평일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친구들에게 이 목표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비공식적인 감독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 없이 목표했던 공부량을 다 성취해 낼 수 있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저희 와드의 절친했던 친구들이 모두 모여 함께 '가장 합당한 고3'이 되기 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약 10명 가량의 고3 친구들이 있었으며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는데 모두가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단순히 '안식일은 거룩하고 뜻있게 보내야 한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좀 더 능동적으로 보내고, 평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목표 아래 3월부터 우리 교유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는 아침 일찍 나와 철판 지우개를 털고 분필을 준비하는 등 간단한 청소를 하고, 2층에 올라가서는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열린 창가로 한 사람 두 사람 씩 오는 교회 회원들을 보면서 손을 흔드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모든 모임을 마친 후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고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고3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리가 일요일

오후에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그 후 중창연습, 주제토론, 경전 읽기, 단체 및 개인 기도, 편지 쓰기, 엔사인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질적인 복음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토론하고 기도하는 의미있는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제게는 지하실 보일러실에서 켜켜한 냄새를 맡으면서 가졌던 개인 기도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친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격려하는 규칙을 정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서로가 공부한 양을 점검하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신앙과 우정, 그리고 뚜렷한 목표 의식은 어찌면 고달프고 지겹게 받아들여야 했을 지도 모를 고3 생활을 즐겁고 보람차게 해주었습니다.

1년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 다. 한 번은 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의 슬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 친구를 위로하며, 기도해 주고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던 친구도 있었고 집안 문제로 갈등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의 불신앙과 게으름으로 안타까와 하곤 했지만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학기초에 안식일 날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과 마찰을 빚었던 일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일이 작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찰은 선생님께서 결국 이해

해 주심으로써 잘 해결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신경을 써 주시던 선생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로 문제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적었던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부량을 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수 많은 방법들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밀도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선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날 해야 할 일들을 말씀 드리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제겐 한편으론 부담이 되면서도 그 만큼 추진력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에 항상 빛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게으르다고 생각될 때엔 얼굴에 싸인펜으로 선을 그어 놓고 거리를 다니기도 했고, 선생님을 찾아 가서 목표를 말씀 드리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때 체벌을 받겠다는 약속도 하곤 했습니다. 또 하루 공부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으므로 항상 버스가 끊기는 때를 대비해서 택시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공부할 때에 맥박이나 초침의 리듬을 타고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학교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항상 뛰어 다니려고 노력 했는데 가끔 이것 때문에 지나가시던 선생님께 야단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출입하기전, 평행봉이나 철봉에서 규정된 운동을 반드시 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의 '시원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3 때는 유난히도 보신탕을 좋아 하시던 담임 선생님과 보신탕도 많이 먹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 선생님께서 사 주시고 못 치르면 제가 사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들은 고3 생활들을 게임처럼 즐겁게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겨울이 찾아 오고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시험 치기 1주일 전 친구들은 다 교회의 작은 방에 모여 조그마한 "노년의 밤"을 가졌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1년동안 노력하면서 느꼈던 간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나눴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되지는 않았지만 그 1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성실성, 우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간증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1년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어렴풋이 눈 뜨기 시작했고, 우정을 배웠으며, 세상을 성실하고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보다 실망과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선생님과 부모

님의 격려도 수험생들이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무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일성도 청소년들의 성공 여부가 대학 합격에 달려 있다는 말에 큰 모순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교회와 학교 생활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대부분의 말일성도에게 존재하며, 청소년때 얻은 지혜는 평생동안 훌륭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 역시 아직까지 그러한 어려움과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나의 아들이, 네가 젊었을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라는 엘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노력에 사랑과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뻗쳐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



구모라 합창단 가두 합창 발표 및 선교 전시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전야, 광주 스테이크 구모라 합창단(단장: 임종하 형제)은 스테이크 선교부(선교부장: 문황업 형제),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광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충장로에서 천사의 음성과 주님의 기쁜 말씀을 전하였다.

모두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발표회를 통하여 물몬경 80권이 전달되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성탄절 전야에 회복된 복음을 전해 들은 의미 있는 날이었다.

구모라 합창단과 선교부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단원들과



스테이크 선교사들의 영성을 고양시키고 이들과 복음 선교사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 회원 선교사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할 생각이다.

매주 일요일마다 단원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연습실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의 훈련장이며, 천사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예배실이다. 이제 창단 10주년이 된 구모라 합창단의 노래를 통한 선교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

수정 와드 합창단 '그노라움' 태어나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교리와 성약 25:12)

일찍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가 열리면서 '태버내클 합창단'을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합창단이 주님의 교회에 조직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모인 곳



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고 음악이 있는 곳에는 또한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써 말일성도의 역사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미 속에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수정 와드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7월의 어느 날이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 살림살이, 좀처럼 틈을 내기 어려운 직장 생활, 게다가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이번에는 우리도 반드시 훌륭한 합창단을 가지자는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는 없었다.

와드 음악 책임자로서 합창단의 지휘를 맡은 운영자 자매와 반주자 김영애 자매, 그리고 합창단 단장인 허시영 형제가 앞장을 서고 스스로 합창단의 일원이 된 백용부 감독을 비롯한 합창 단원 모두가 뜻을 함께 하는 가운데 매주 목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는 이들이 어우러 내는 화음으로 와드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휘자 운영자 자매의 탁월한 곡 해석과 열성적인 지도력에 반주자 김영애 자매의 말없는 헌신이 곁들여져 합창단의 수준은 날이 다르게 향상되었다. 한편,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주 격려와 감사의 편지를 띄우고 때로는 전화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허시영 형제의 열의는 자칫 주저 앉으려는 합창 단원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한 힘이 되었다.

‘그노라움 합창단’—

아브라함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로 ‘영원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그노라움을 합창단의 이름으로 택함으로써 주님의 복음 속에서 영원히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의지를 담고 발족한 이 합창단은 마침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창단 공연의 무대를 열었다. 이 뜻있는 행사의 경건성을 드높이고 이 합창단이 가꾸어 온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백용부 감독은 이 공연을 활동실이 아닌 예배실에서 갖도록 허락했다. 수정 와드의 활동실은 벽면이 방음처리가 미비한 시멘트 벽돌이어서 소리의 흡수 능력이 몹시 뒤떨어지지만 예배실은 전편의 목재 내장과 좌석의 나무 의자가 소리를 잘 받아들이어 활동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훌륭한 음악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단의 의자를 모두 치우고 하늘색 단복을 입은 30명의 합창단이 들어 섰을 때, 공연장을 꽉 메운 청중들의 가슴에는 잠깐 가 베푼 흥분이 스쳐갔다.

드디어 서곡 ‘미가엘의 후손들아’가 예배실 안을 울려 퍼지고 영감어린 찬송곡과 주옥같은 우리 가곡들이 노래 되는 동안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되어 가슴 가득한 기쁨과 감동을 나누었다. 참으로 이 순간이야말로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라고 이르신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공감하는 한 순간이었다. 청중 중의 누군가가 “태버나를 합창단에서 느끼는 감동,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말한 것은 그 평가의 객관성 여부를 떠나 어찌면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느꼈던 가장 정직한 표현이었던지도 모른다.

이날 창단 공연에서는 전영준 형

제와 임인숙 자매의 축시, ‘고라후손들의 노래’가 울어지고 광안 와드의 중창단이 우정 출연하여 이 합창단의 첫걸음에 한가닥 빛을 더했다.

그노라움— 이름 그대로 영원하리라는 믿음으로 새해에도 그노라움 합창단은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고 복음 속에서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

천안 지부 기공식

1993년 12월 18일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기에 충남의 서 북부 지역에 자리한 천안 지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그동안 성도들이 고대 하였던 표준 건물의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천안 지부는 1980년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회에 걸친 전세 건물의 이전이 있었으며, 84년에 첫 지역 지부장으로 김문집 형제가 부름을 받았었다. 그 이후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 그리고 희생의 결과로서 마침내 뜻깊은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강우 대전 선교부장 및 지역 지도자와 13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미래의 시온의 스테이크가 되기 위한 기초로서 천안 지역에 첫번째 표준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것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사정상 건축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지 못하고 기존 건물의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지만 성도들이 지역에 표준 건물이 들어선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였다. 이 건물은 2층으로 94년 8월 완공 예정이다. □

(기사 제공: 김현수 형제)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의 한국인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멀리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지역의 한국인 형제, 자매들이 고국의 성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미국 남부지방의 중심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인 성도들의 수는 비록 적지만 일당 백, 일당 천의 기상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달래며, 신앙의 불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매주 마리에타 와드에 모여 우리 말 주일 학교도 갖고, 기회있는 대로 함께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고국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복음도 하나이고 참된 사랑도 하나라는 간증을 전하면서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안 지부 기공식 광경



아틀란타시의 한국인 성도들

- | | | | |
|-----------|-------------|---------------------|------------|
| 1. 이연주 형제 | 2. 오명숙 자매 | 9. 이유은 자매 | 10. 강예지 자매 |
| 3. 케이박 자매 | 4. 글래스 김 자매 | 11. 강건희 형제 | |
| 5. 박용찬 형제 | 6. 이순열 자매 | 사진에 없는 성도들: 권오건, | |
| 7. 이해영 자매 | 8. 강경오 형제 | 양연희, 이경숙, 박샘, 박광희 □ | |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한국인 성도들

지난 1993년 12월 26일 유타주 프로보에서는 유학 거주 중인 말일 성도들이 갖는 연례 간증 모임을 가졌다. 대부분의 한국인 성도들은 비와이유(BYU) 11 스테이크 아시안(ASIAN) 와드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호남 감독의 감리 하에 조덕현 형제를 회장으로 하여 노변의 모임을 매월 갖고 있다. 연중에는 역대 한국 선교부장 및 그곳에 있는 회원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모임을 갖고,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회원들의 간증 모임으로 외국 생활을 하는 동안의 갖은 애환과 좋은 경험들을 서



유타주 프로보의 한국인 성도들

로 나누며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의 간증을 복돋아 주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

음을 모아 한국의 모든 성도들께 사랑과 안부를 전한다. □

(기사 제공: 김준홍 형제)

대관장단이 세계 가정의 해 지정을 지지함

대관장단은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정한 것을 지지했다.

대관장단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정한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그 국민들의 가정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더 없는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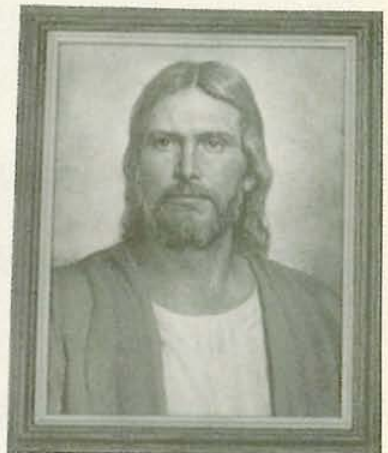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특권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훌륭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옛날부터 중요시해 온 미덕인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봉사 정신을 심어 줄 때, 가정 생활은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가정에 의로움과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기원합니다.” □

수입 물품 소개

	Item 번호	크기	가격
예수 그리스도(大)	80121	343×420	10,800
예수 그리스도(中)	80215	203×254	7,400
예수 그리스도(小)	80217	152×203	4,200
그리스도와 어린이	80239	229×279	7,000
그리스도와 어린이	80607	127×178	6,000
어부를 부르심	80152	127×178	6,000
산상수훈	80285	127×178	6,000
승리의 입성	80286	127×178	6,000
갯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80389	330×483	8,600
마리아와 부활하신 주님	80288	127×178	6,000
재림	80724	127×178	6,000
솔트레이크 성전(야경)	80125	127×178	6,000
솔트레이크 성전(겨울)	80141	127×178	6,000
워싱턴 성전	80131	127×178	6,000



원고 모집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지역 소식란에 실을 독자들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내용

- ① 새로운 회원의 개종이야기
- ②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며 겪은 어려움과 간증
- ③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에 참석하며 얻은 간증
- ④ 성전 의식을 받거나, 가족 역사를 기록하면서 얻은 간증
- ⑤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로 준비하거나 봉사하며 겪은 경험
- ⑥ 가족 및 가정의 밤 소개
- ⑦ 물문경을 통해서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
- ⑧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성공 사례
- ⑨ 훌륭하게 계획되고 진행된 모임

분량: 200자 원고지 8~10매, 컴퓨터 출력의 경우 A4용지 1~1.5매

기재 사항: 성명, 주소, 소속 와드/지부명, 전화 번호, 사진, 교회 부름
원고 마감: 매월 1일

보낼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우편 번호)133-60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편집실

전화) 02-232-1441

팩스) 02-235-3357

- 원고는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보내실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훈련원 제 160기

(1994. 1. 17~1994. 2. 4)

〈성명〉

강길자 자매
권배석 장로
김진숙 자매
류무열 장로
박미영 자매
박윤희 자매
신수언 장로
이병환 장로
이의섭 장로
이인숙 자매
정삼용 장로
최진수 자매

〈출신지〉

서울 M / 동두천 B
대구 S / 수성 W
광주 S / 충장 W
대구 S / 중리 W
광주 S / 백운 W
서울 S / 화양 W
안양 S / 독산 W
광주 S / 송정 W
인천 S / 용현 W
동대문 S / 용두 W
광주 S / 충장 W
인천 S / 답동 W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대전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선교부
대전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이의섭, 신수언, 류무열, 정삼용, 이병환, 권배석
앞줄 왼쪽부터: 최진수, 박윤희, 김진숙, 박미영, 이인숙, 강길자